

“역사 비춘 거울 통해 여러 모습 느꼈으면”

옛 국군광주병원서 작업하는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 영국 마이크 벨슨

옛모습 그대로 살린 병원 교회서 제작중
오월 사적 병원에서 떼낸 60개 거울 매달아
“집합 공간 속에서 나만의 관점 가지길”



작품에 쓰일 거울을 떼낸 국군광주병원 본관 건물.

낡은 2층 하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가 눈에 들어왔다. 먼지 투성이 공간에 널부러진 유리 조각이 발에 밟히고,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까지 타고 넘어온 말라빠진 담쟁이 덩굴이 눈에 띈다. 폐허나 다름 없는 공간이다. 작은 방들엔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의 낫발이 남아 있어 이곳이 '병원'이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5일 찾은 광주시 동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본관 건물 안으로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영국 작가 마이크 벨슨을 비롯한 아피자트풍 위라세타룬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처음 시도한 GB커미션 리서치를 위해서였다. GB커미션은 광주정신을 시각매체로 승화·확장하는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다.

당시 505 부대 등도 둘러본 마이크 벨슨은 국군광주병원 본관 인근 '국광교회'를 전시장소로 택했다. 작품 재료는 병원 본관 건물에서 떼어낸 '거울'을 활용하기로 했다. 1962년 국군광주통합병원으로 창설한 옛 국군광주병원은 지난 1984년 국군광주병원으로 개칭됐고 2007년 합병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비어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1980년 5월 민중항쟁과 관련이 있다. 안내판에는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이 치료를 받았던 곳이다. 이곳에까지 계엄사 수사관들이 파견돼 시민들은 치료 과정에서도 취조를 당했다"고 적혀 있다. 병원은 1998년 5·18 기념사적지 23호로 지정됐다.

마이크 벨슨이 15일까지 머물며 작품을 설치하는 '국광교회'는 본관에서 30m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붉은 벽돌 외관과 꼭대기에 걸린 하얀 십자가, 깨진 유리창의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작가는 건물 내부를 거의 손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놓아둔채, 60여개의 거울을 매다는 설치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교회 건물은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 옛 모습 그대로. 거울을 매달 다양한 길이의 봉만 설치한 상태다. 처음 병원 본관 건물을 방문했을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헛것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건물을 돌아다닐 때

항상 마주치는 게 병원 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이었다.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울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싶었고 깨진 것은 깨진 그대로, 오래된 것은 오래된 그대로 떼어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울은 옛 모습 그대로 변형을 주지 않았다."

거울에는 충성, 예방접종 안내, 이발 안내 등 당시 시대상과 역사를 담은 문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거울은 축적된 시간의 증인인 셈이다. 첫 방문시 사진을 찍어간 그는 재단에 '글귀'의 의미를 문의하며 관심을 표하기도 했다.

"관객 개인 개인을 집합적 의미가 강한 교회로 데려가 다양한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 앵글 밖을 보는 것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것은 자신을 기록하는 기억의 과정이기도 하다. 사진에 자신의 모습을 담는 것처럼 말이다. 미술사에 정보가 있는 사람은 거울을 활용한 작품을 많이 제작했던 로버트 스미슨의 작품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영국관 참여 작가로, '터너 프라이즈'에 두 번 노미네이트됐던 그는 물리적 공간으로 서편 아니라 심리적·내면적인 공간으로서 건축물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폐허, 버려진 공간을 리빌딩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현대 시대에는 물질이 소비되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쌓여가는 게 의미가 있다. 작업하는 교회 역시 5·18과 함께 그 이전 역사까지도 접할 수 있어 흥미롭다. 다양한 역사가 공존하는 셈이다. 지금은 신도들이 모이지 않고 믿음이 빠져 나간 교회라는 집합적 공간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포함해 여러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교회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관객들이 역사가 됐든 자신의 삶이 됐든 자신만의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면 좋겠다."

한편 아피자트풍 위라세타룬도 병원 본관에서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는 9월 6일 개막하는 2018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참여작가인 영국 설치미술가 마이크 벨슨이 5일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광주시 동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 교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병원에서 떼어낸 60여개의 거울을 매다는 설치작업을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소하지 않은’ 노작가의 부탁

황현산 교수, 암투병 중 산문집·번역서 발간

“나는 이 세상에서 문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물어왔다. 특히 먼 나라의 문학일 뿐인 프랑스 문학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뇌해왔다. 내가 나름대로 어떤 슬기를 얻게 되었다면 이 질문과 고뇌의 덕택일 것이다. ‘밤이 선생이다’, ‘우물에서 하늘 보기’ 이후에 썼던 글을 묶은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고뇌의 어떤 증거이기도 하다”

(‘사소한 부탁’ 중에서)

문학평론가인 황현산(73) 고려대 불문과 명예교수가 두 번째 산문집 ‘사소한 부탁’(난다)과 번역서 ‘말도르르의 노래’(문학동네)를 펴냈다.

올해 2월 암 재발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했던 황 교수는 투병 중에도 산문집과 번역서를 발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문집 ‘사소한 부탁’은 첫 번째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가 나온 지 5년 만으로, 저자는 책에서 지난했던 시간들을 담아낸다.

평생을 그려왔던 것처럼 저자는 감정적 앞선보다는 사유에 무게를 두고 조곤 조곤 이야기를 풀어낸다. 산문의 시작은 지난 2013년 3월 9일에서 시작돼 2017년 12월 23일에 끝난다.

책 제목의 일부이기도 한 ‘사소한’이라는 단어 뜻과 달리 내용은 알맹이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한글날에 쓴 사소한 부탁’이라는 글에서 표준국어대사전에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올려놓을 것과 ‘한컴 오피스 한/글’의 맞춤법 검사 기능을 섬세하게 다듬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언어는 사람만큼 섬세하고, 사람이 사라야 언어만큼 복잡하다. 언어를 다루는 일과 도구가 또한 그러해야 할 것이다. 한글날의 위례를 업고 이 사소한 부탁을 한다. 우리는 늘 사소한 것에서 실패한다.”

이번에 함께 출간된 번역서 ‘말도르르의 노래’는 프랑스 시인 르테레아몽(1846-1870)의 작품집이다. 황 교수는 ‘로트레아몽은 자기 시대의 ‘위대한 물렁머리’를 탄핵하고, 새로운 사상의 지도에 자리를 잡는다. ‘말도르르의 노래’ 자체는 문학에 절대적으로 새로운 어조를 가져왔다”고 평한다.

이번에 함께 출간된 번역서 ‘말도르르의 노래’는 프랑스 시인 르테레아몽(1846-1870)의 작품집이다. 황 교수는 ‘로트레아몽은 자기 시대의 ‘위대한 물렁머리’를 탄핵하고, 새로운 사상의 지도에 자리를 잡는다. ‘말도르르의 노래’ 자체는 문학에 절대적으로 새로운 어조를 가져왔다”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소프라노 윤하나 독창회 12일 금호아트홀

모차르트·리스트 등 연주

소프라노 윤하나 독창회가 오는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로날드의 ‘인생의 순환’, ‘전주곡’, ‘숲속 깊은 곳에서’, ‘바람이 부르네’, ‘눈이 내리네’, ‘내 사랑 내가 원했던 그대’, 스토라우스의 ‘내일’, ‘내 사랑을 안고’, ‘세실리’, 모차르트의 ‘친애하는 젊은이여’를 무대에 올린다.

또 리스트의 ‘페트라르카의 3개의 소네트’, ‘마음의 평정이 없네’, ‘모든 것은 추박이었네’, ‘지상에서 천사를’, 사르팡티에의 ‘그날 이후’를 선보인다.

이날 공연에는 피아니스트 지해나와 비올리스트 윤성근이 출연한다.

윤 씨는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만토바 아카데미를 수료했으며 북텍사스 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오페라 ‘춘향전’, ‘가면무도회’, ‘리골레토’, ‘코지판투테’ 등 다수의 오페라 작품에



소프라노 윤하나

출연했으며 현재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외래교수로 활동중이다. 전석 2만원(학생 50%). 문의 010-5176-139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전당, 아시아 비상업영화 10편 제작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ACI)은 실험영화 등 비상업영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ACC 시네마 펀드’ 지원작으로 총 10편을 확정했다.

지난 5월 7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 ‘ACC시네마펀드’에는 아시아 17개 지역의 영화 118편이 접수됐으며 실험영화부터 다큐멘터리, 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출품됐다.

주로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작가와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이 지원했으며 심사위원들은 기존의 상업영화 틀에서 벗어나 비타협적 태도로 독자적인 작업을 해오며 영화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에 주목했다.

선정된 작가는 사전제작 지원의 ‘변재규(한국)’, ‘지아

후이정 앤 권위안평(중국)’, ‘타이기 삭피닛(태국)’, ‘존 토레스(필리핀)’, ‘비목티 자야순다라(스리랑카)’와 후반제작 지원의 ‘입 육 유(중국 홍콩)’, ‘보 왕(중국)’, ‘수리청(중국 대만)’, ‘알버트 삼렛(캄보디아)’, ‘야사스위 니라우난단(인도)’이다.

‘ACC 시네마 펀드’에 선정된 프로젝트의 작가들은 ACC의 필름제작워크숍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오는 7월 24일 프로젝트 제작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종으로 완성된 작품은 11월 ACC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